

□ Summary □

**Mr. Choe Jun's
House
in Kyongju**

by
Nam chull Joo

Mr. Choe's house was constructed at 18th century is an important Yi dynasty upper class house, and a study for the Mr. Choe's house is very important.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made known public for the plan of it, but I have found that the plan had a big mistake, so I make known public for the right plan and the study of it.

This house is different from other Yi dynasty upper class houses from structural viewpoint.

That are:

1. Three outer column of Dai-chung(a big Malu of main wing) are a big round column.
2. The Kingpost is circle form on the contrary to general case.
3. The gable of the main wing has Pungpan and the storage has also.
4. The foundation stone has an underlayer, but I think that was the foundation of Yo-Suk palace.

경주교리(慶州校里) 최준(崔浚)씨 주택

—문화재 지정을 권의하면서—

주 남 철

1. 머리말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이조시대 부터 전하여 오는 전통적인 주택은 점차 그 자취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 이조시대의 주택을 보존한다는 일은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일이다.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들의 화식주택구조(和式住宅構造)의 범람과 8.15 해방 이후 특히 6.25 이후의 양식주택(洋式住宅)의 번창으로 고유한 한식주택은 점차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목재의 희귀성을 들 수 있겠고 건축재료의 발달로 구조를 바꾸어온 이유도 있다. 또는 생활양식이 점차 변모되는 소이나 경제적 문제도 따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원인으로 말미암아 한식주택의 건축은 점차 힘들어 가고 있는 반면 이조시대의 상류주택은 그 관리의 어려움과 주택 주인의 경제적 내지 사회적 변동으로 헐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때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인 경주에 그 건축연대가 근 200여년 전이나 되며, 그 규모로나, 그 주택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보아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주택인 교리(校里) 최준(崔浚)씨 가(家)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한다는 것은 문화적 유산을 보존한다는 뜻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더우기 경주가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로서의 현재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음으로 앞으로 어떤 사태가 올는지 아무도 추측할 수 없다. 더우기 최준(崔浚)씨의 말에 의하면 본주택(本住宅)을 영남대학에 기부를 하였다고 하는 바로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던 이제 본주택의 평면, 구조 등의 제면(諸面)에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2. 최준(崔浚)씨 가(家)의 연혁

최준씨의 아들 최식(崔植)씨의 말에 의하면 이 주택의 건축은 약 200여년 전이라 한다. 최(崔)씨 가(家)는 9대 만석군 집안으로 현재도 경주에서는 최부자집으로 통하고 있다. 이 주택의 가대(家臺)는 원래 신라시대 실총

의 모(母)인 은석 공주의 궁전인 요석궁의 대지였다고 한다. 집을 지을 당시 이 주택의 옆에 경주 향교(鄕校)가 있어서 많은 선비들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지사의 말이 이 가대(家臺)에 건축하면 자손이 번창한다 하므로 그대로 집을 지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본주택의 건축연대는 이조 중기인 1700년대 이며 집을 지을 당시 풍수지리설에 상당한 영향을 입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 최(崔)씨 가(家)에 대한 그간의 연구

최준(崔浚)씨 가(家)가 문헌상에 나타난 것은 해방 전 조선총독부가 조사 발표한 생활실태조사서 그 7에 게재된 것이 처음이었다.

그후 본인이 “한국주택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 연구”(주 1)에서 위의 문헌에 게재된 평면도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최근 1969년 공간지(空間誌)가 그 3월호 “이조상류주택” 항에 이 최준씨 집의 사진과 평면도를 실고 있는바 여기의 평면도 역시 전기 문헌에 게재된 것이었다. 그러나 본인이 1968년 8월에 현지에 가보고 놀란 사실은 전기 문헌의 평면도가 큰 착오를 범했다는 사실이다. 이 잘못된 평면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본인도 큰 잘못이며, 더우기 현지에 가서 사진까지 찍은 공간지(空間誌)가 잘못된 평면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게재하였다는 것은 큰 실책이다. 이러한 본인의 과오나 공간지의 과오 또 전기 문헌의 과오를 금번 시정하므로써 최준씨 가에 대한 연구를 올바르게 하고 본인의 졸전을 말하므로써 학계의 관심이 이 주택에 집중되어 보다 더 깊은 분석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4. 평면적 고찰

그림 <1>은 조선총독부가 조사발표한 도면으로 본인과 공간지가 그대로 받아들인 평면도이고 그림 <2>는 본인이 1968년에 조사 실측한 도면이다.

이 도면을 비교해 볼 때 상류주택의 공간구성에 있어 조그만 실수가 얼마나 큰 차이점을 가져 오는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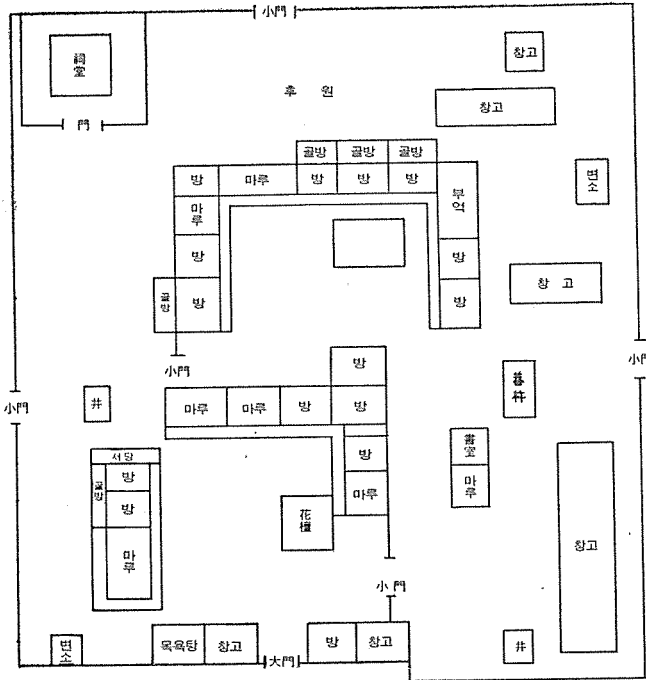


그림 <1> 慶州市校里崔浚氏宅配置圖(朝鮮總督府刊 生活狀態調査其七) (調査資料第四十輯慶州郡 所藏)

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림 <1>은 각 실(室)의 배치에 있어서는 그림 <2>와 별다른 차이점은 없으나 채(棟)의 배치를 생각할 때 전채의 공간구성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조주택의 공간적 특색은 공장(空牆)과 채(棟)가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공간이 독자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이들 공간 간에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공간 공간에 들어섰을 때 마다 새로운 정서를 받게 된다. (주 1). 그림 <1>은 이러한 특징 즉 마당과 채(棟)가 이루는 특이한 공간구성이 모두 말소되어 있다. 단지 사랑만이 하나의 폐쇄적인 공간을 이루면서 전체 공간 속에 놓여져 있다. 그러나 그림 <2>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뚜렷하다. 때문에 들어섰을 때 사랑채와 사랑마당이 주는 공간의 정서, 사랑채를 뒤로 돌아섰을 때 사랑까지 이르는 사랑 후정의 공간정서, 중문을 들어섰을 때 안채와 안마당이 이루어 놓은 공간정서, 안채의 뒤 후원, 이들 모두는 넓은 대지의 주위를 한 공장(空牆)과 행랑채로 둘러싼 큰 폐쇄적 공간 속에서 제 각자의 특성을 가지며 또한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주택에서 미흡한 점은 행랑마당과 사랑마당을 독립시켰다면 이조상류주택의 공간적 특성이 더한층 부각되었을 것이다.

이 주택에서 재미 있는 공간구성은 그림 <2>의 (가)가 보여주는 공간으로 이는 건너방의 뒷마당이다. 이 조그

만 들은 다른 곳에서는 일체 들어갈 수 없는 폐쇄적 공간이지만, 그러나 이를 둘러싼 담(그림 2의 (나))은 그림 <3>과 같이 솟기와 를 서로 마주하여 중앙에 구멍을 내어 뒷마당과 상호 유통토록 하였다. 이러한 것은 공간의 유입(流入) 문제상 중시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 주택에서 보이는 후정과 부엌의 우측 마당의 구성은 강릉 이기재씨 주택이나 최중완씨 본가와 같은 형태로 일반적으로 평지(平地)에 지은 주택 후원(後庭)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이 주택에서 하나 이상한 것은 안채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사랑마당을 통과해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내시의 전형적인 형식이나 본가(本家)가 내시의 집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극히 봉건적인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5. 구조적 특색

이 주택은 이조시대 상류주택이 가지는 전형적인 구조양식과는 달리 이 주택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붕을 살펴보면 이 주택은 안채, 사랑채, 중문간채 모두가 한 지붕으로 연속되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조 상류주택은 안채, 사랑채가 각각 독립하여 팔각지붕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단지 비원의 연경당에서 안채와 사랑채가 한 지붕으로 연속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중문간이나 광들이 없이 오직 안채와 사랑채의 몸체가 일직선상에 놓인 경우로 이 주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다음 풍판(風板)을 단 것이다. 풍판은 농묘의 정자각이나 사찰, 왕궁, 관위건축에 쓰이나 민가에서는 안 쓰고 있다. 이 주택이 민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3>의 안채박공과 그림 <5>의 창고에 풍판이 붙어 있는 것이다. 다음 안채의 기둥 중 대청의 외주 3본(本)이 원형기둥으로 되어 있다. 원태 환주(丸柱)는 왕궁(王宮), 사찰 등에 쓰이고 민가에서 환주(丸柱)를 사용하는 경우는 오직 서민주택에서 직경 불과 4치 정도의 조잡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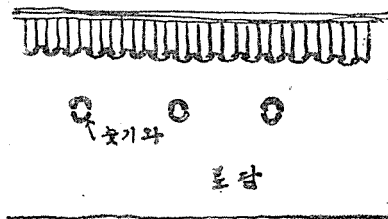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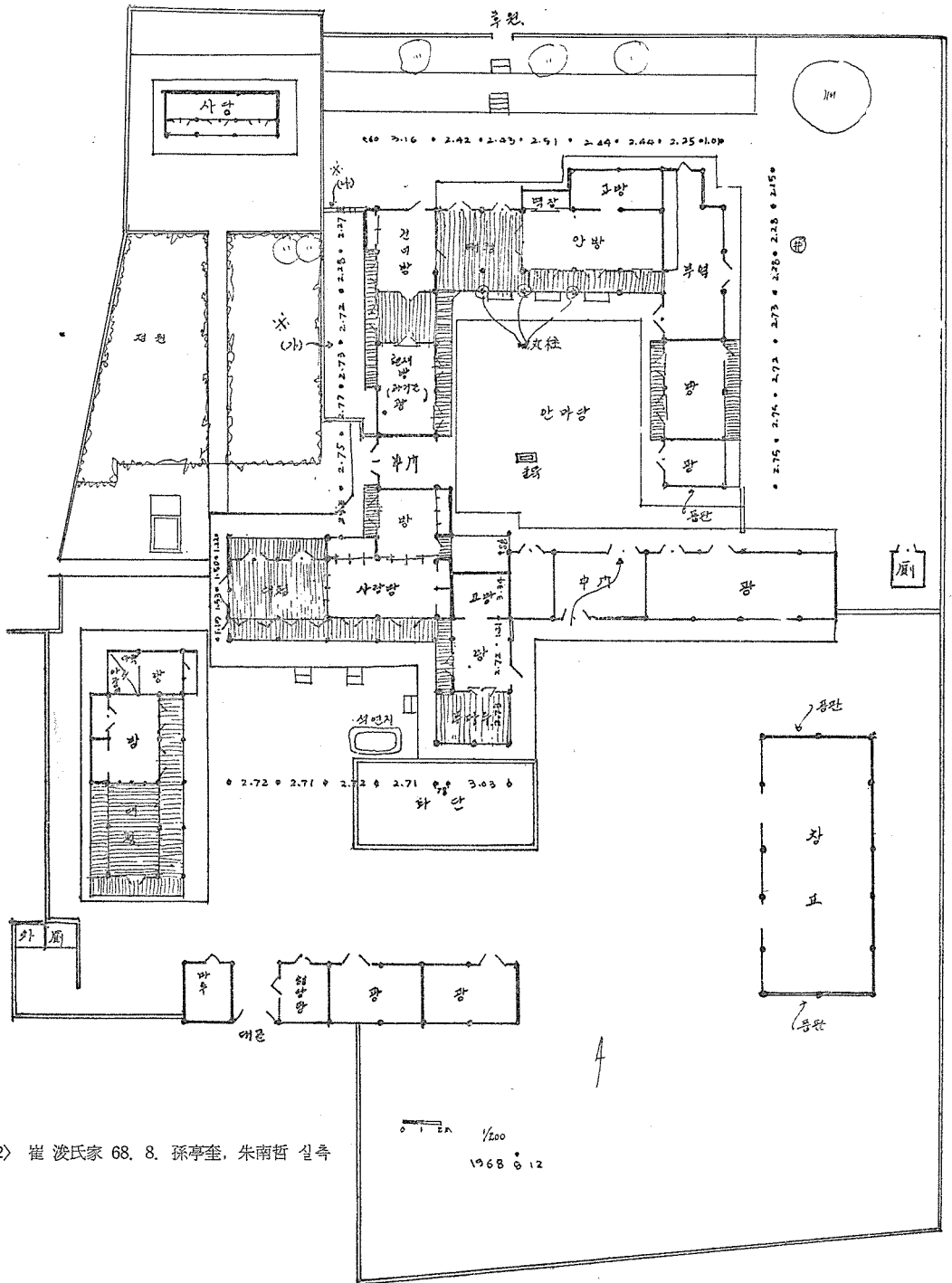


그림 <2> 崔浚氏家 68. 8. 孫亭奎, 朱南哲 실측

을 쓴다. 그러나 이 기둥은 직경 9촌 정도의 큰 것이었다.

다음의 특징은 매청의 마루대공과 동자기둥의 형태이다. 일반 상류주택의 마루대공은 그림<6>과 같이 되어 있는데 비해 이 주택은 그림 <7>과 같이 원형의 판

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수법은 사랑채의 대공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주택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일반주택에서는 기둥에 붙이는 벽선은 일반으로 밀린방, 중인방 또는 옷인방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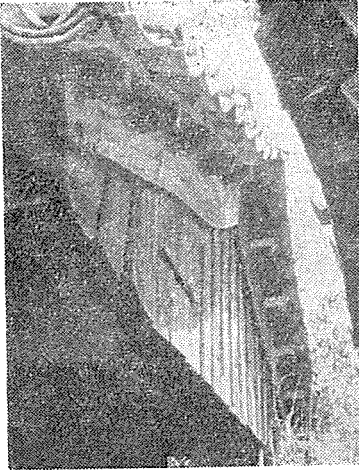


사진 <4> 안채 동판



사진 <5>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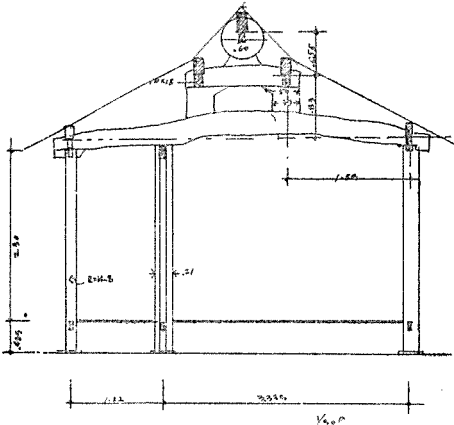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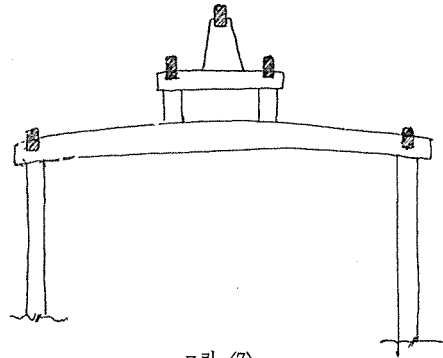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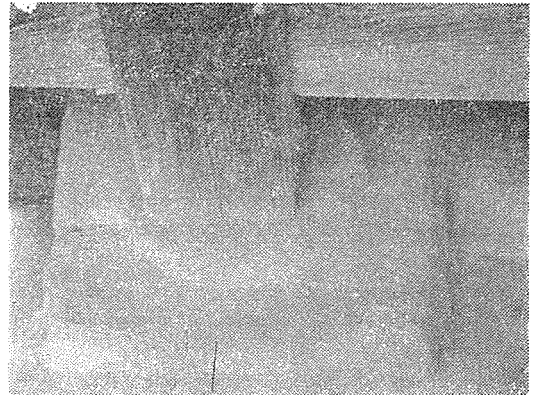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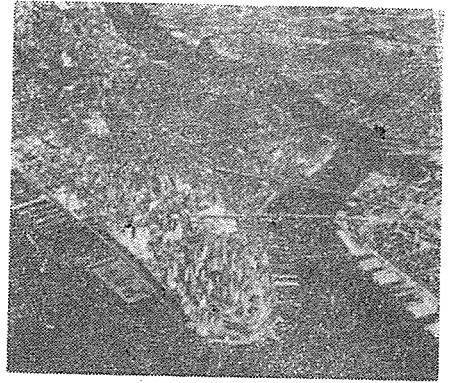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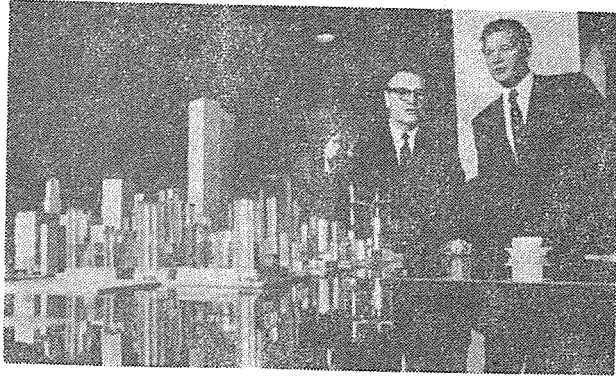
사진 <8> 초석

끼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붙인데 반해서 이 주택은 창방 아래서 부터 바닥까지 쪽 내려 붙이고 그 다음 이 양 벽선에다 문지방을 달고 등자주를 세웠다. 이런 예는 금산사의 대적광전에서 본 바 있다.

끝으로 이 주택의 주초석은 그림 <8>과 같이 원형돌을 이 있다. 이런 형태는 경주 불국사의 주초석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상당히 고식(古式)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주초석이 사랑채, 안채 이외의 아랫채 주 광갈은 메에도 모두 이것으로 되고, 더 우기 그림 <8>과 같이 원형돌을한 주초석의 놓인 방향이 틀린 곳이 많으며, 이 주택 옆에 있는 향교에서도 같은 예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원래 요석궁터에서 나온 주초석을 모아다가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으로 우리는 이 주택의 평면적,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른 상류주택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건축연대의 오래됨을 보아서 또 이 주택의 규모로 보아 우리 주택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언이 아니겠다. 이로서 본인은 이 주택을 하루마찌 문화재로 지정하여 잘 보존 연구하기를 제의하는 바이다.

주 1. 한국주택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연구, 건축학회지



뉴욕 시 재개발 계획

Newsweek, April 28, 1969

거대한 계획과 환상의 꿈을 꾸는 시대에 뉴욕 사람들 그들의 시를 경이적인 도시로 변모시키려는 장기간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냉소적이다. 그래서 지난 주에 시장 린드세이와 지사 록펠러가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단일 도시 개발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지로 사실이였음이 구체화되었다. 더우기 그 계획이 상당히 많은 감명을 주는 것이었다. 건축 평론가 Ada Louise Huxtable은 그 계획이 놀랄만한 노력이라고 했다.

그 계획 자체는 1마일 길이의 선형(線形)의 도시로서 만하탄 서쪽 끝의 하드슨 강물을 따라서 10년 후에 지어질 포용력이 넓고 또 충분히 자급자족이 이루어진 시(市) 중의 시로서 사무실, 주택, 학교, 상점, 극장, 음식점, 공원 그리고 그 시 자체의 내부 교통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계획이 완성되면 55,000주민들은 White Plains(뉴욕 동남부 지역)시 보다 더 큰 곳에 살게 될 것이다. 그 곳의 5백만 평방 feet의 사무실 공간은 세계의 새로운 오피어 스테이트 빌딩과 비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10억 달러 이상이 들 것이다.

거래 이 개발계획은 Battery Park City(뉴욕 만하탄 남부의 공원)라 불리우는데 시장의 후원을 받은 주지사의 주관으로 계획을 실행하려는 3년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저명한 건축가 Wallace Harrison, Philip Johnson, William Conklin 세 사람이 많은 협상을 가져왔다. 현재 강으로 떨어들어간 지저분한 부두 그곳에 뿔뿔하게 집을 짓기 위해서는 Battery Park City를 테이커 케이크(크림, 젤리, 잼 등을 샌드위치 모양으로 가운데 넣은 카스텔라 과자)와 같이 건설해야 될 것이다. 대부분의 대지는 하드슨 강 위 27feet가 될 것이며 계획한 전 길으로 뻗은 중앙 동선을

따라 위치한 상점, 음식점, 아케이드가 주택지 위에서 공원과 open space와 교체가 될 것이다. 지평선은 변경될 것이고 새 부두는 공원과 작은 만으로 인해 파괴될 것이다. 1,900개의 아파트는 주로 인접해 있는 금융지역이나 몇 발자국 건너편의 거대한 신세계무역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들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형태는 불비는 뉴욕 교통시설의 부담을 한결 덜어준다. 린드세이 시장은 말하기를 직장에 걸어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돈의 마술 이 계획에서 가장 묘한 부분이 재정문제이다. 주정부 당국은 주의회에서 결의한 대로 세방을 뉴요크시로 부터 임대할 것이며 또 기본 시설에 투입할 1억5천만 달러를 현금이나 공채(公債)로 유통을 시킬 것이며 실지 공사를 위해서는 개인 건축주들에게 일부 지역을 청부 맡길 것이다. 그리고 시에서는 상승한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1억달러의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이 비용은 상당히 이윤이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결국에 가서 시에서는 1년에 3천 5백만 달러를 빌리거나 다른 세입에서 메꾸어야 할 것이다. 물론 누구나가 이 계획을 찬성한 것은 아니다. 부두노조에서는 부두작업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이 계획을 저지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다만 1,266 Units, 중소득층을 위해서는 방하나에 50달러짜리 5,000, Units, 그 나머지 12,000 Units 이상을 100~150달러짜리 방으로 고소득층을 위해서 배분을 해놓았다는 이 사실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에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될 것이며 지난 주에 록펠러 지사가 말하드시 뉴욕의 위대한 커뮤니티 나라의 모델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